

전주시, 규제완화로 재개발 ‘쾌속’

현재 4일 오전 11시 尹 탄핵 심판 선고

건축 규제 완화·통합심의 시행…재개발·재건축 2개월 단축

하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계획 통합심의 ‘통과’ 순항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건축 관련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통합심의를 시행하면서 전주시역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2개월 단축되는 등 순항하고 있다.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열린 ‘2025년 제1차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통합심의위원회’에서 ‘하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한 사업시행계획 변경과 관련된 통합심의가 통과됐다.

이에 앞서 전주시는 지난해 5월 정비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를 완화에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신속하게 정비하기 위해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상한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280%로 완화했다.

또,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한 층수 제한도 해제했다.

뿐만 아니라 도시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고 고도지구 내 노후화된 도시 경관과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공원 주변 고도지구의 층수제한을 해제한 바 있다.

하가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조합은 이러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규제 완화를 반영해 당초 27개 동, 최대 17개 층으로 계획됐던 정비계획을 18개동, 최대 29층으로 변경해 지난 1월 16일 통합심의를 신청했다.

전주시는 관계기관 및 부서 협의를 거쳐 지난달 31일 통합심의를 개최한 결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위한 통합심의가 원안

의결 됐다. 이는 기존에 약 8-9개월이 걸리던 건축위원회와 교통위원회,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기간을 약 2개월로 단축한 것이다.

이러한 통합심의를 통해 보다 효율적으로 행정 운영이 가능해지고, 사업시행자도 각계 전문가의 종합적인 심의를 통해 정비사업의 품질 향상을 도모하고 심의 기간 단축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주시 관계자는 “규제 완화와 통합심의를 통해 침체된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분기별로 조합장 간담회를 실시하고, 매월 정비사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실질적인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등 다양한 현장 행정을 병행해 노후된 주거환경이 신속히 개선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국회와尹측에 통보

선고 당일 생중계하기로

헌법재판소가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하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원장으로 탄핵소추 국회 대리인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오전 자신의 SNS를 통해 “현재로부터 연락받았습니다”라면서 현재가 국회와 윤 대통령 측에 통보한 선고기일 통지문을 공개했다.

현재는 이날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덧붙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현재는 생중계를 허용했었다.

탄핵심판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이 탄핵소추된 때로부터

111일 만이다. 또 현재가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들어간 뒤 38일 만이다.

현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파면은 재판관 6인 이상의 찬성의견이 있어야 한다.

현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하고,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를 인용 결정을 하게 된다. 만일 탄핵 기각이나 각하 등으로 3명 이상이 반대 의견을 낸다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앞서 현재는 모두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16명의 증인을 신문했다. 광종근·여인형·이진우 전 사령관 등 군 지휘관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과 조

지호 경찰청장 등 관여자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 국무위원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마지막 변론일인 지난 2월 25일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계엄 선포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명백한 위헌 행위”이라며 “윤 대통령을 파면해 헌법 수호의 의지를 보여달라”고 인용을 요구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제왕적 거대 야당의 폭주가 대한민국 존립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다”며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 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주장했다.

현재의 심판 일정이 미뤄지면서 정치권에서 현재의 결정이 인용이 아닌 기각이나 각하로 가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가 어떤 결정을 하게 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김영목 기자



제14회 수산인의 날

1일 고창군립체육관에서 열린 제14회 수산인의 날 기념식에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김관영 지사, 심덕섭 고창군수, 노동당 한국수산업총연합회회장 참석자들이 기념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관련기사 7면) <사진=전북자치도>

전북, 모빌리티산업·외국인투자유치 강화

도·코트라·시군·JIAT 전문가 초청 세미나 개최

시군별 주력산업 유치…산업 맞춤형 기업 타깃팅 총력

전북특별자치도는 국내외 산업 환경 변화에 발맞춰 모빌리티 산업 및 외국인투자 유치에 위한 역량 강화에 나섰다.

도는 1일 전주시 테크비즈센터에서 ‘모빌리티 분야 및 외투기업 투자유치 촉진 세미나’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코트라(KOTRA), 자동차융합기술원(JIAT) 전문가들이 모여 기업 유치 전략 등을 공유했다.

세미나에는 전북자치도와 새만금청, 도내 14개 시군 기업유치 담당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세미나 첫 강연을 통해 박용수 코트라 선임전문위원은 외국인 투자 유치 전략과 주요 성공사례를 소개하며, “투자유치를 위해 주요 기업 타깃팅과 맞춤형 IR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상훈 코트라 PM이 미국 IRA법(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비롯한 전기차 및 이차전지 관련 정책 동향을 설명했다.

김영군 JIAT 정책기획본부장은 전북 자동차산업의 현황과 전망을 중심으로 발표를 진행했다.

발표자들은 코트라와 JIAT의 헌적 전문가이며, 자동차 분야 기업 근무 경험도 갖추고 있다.

또 현장 중심의 생생한 사례와 기업 입장을 전달하며 참석자들로부터 높은 호응을 얻었다.

도는 세미나를 계기로 시군별 산업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투자유치 전략을 수립하고, 타깃 기업 발굴 및 방문, 공동 IR 등 협업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김인태 전북자치도 기업유치지원실장은 “시군별 주력산업 유치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기업유치를 통한 전북도 경제발전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농협

농협

평~동!

항상 그리워하던
고향이 도착했습니다!

고향의 맛, 고향의 그리움이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로 마음을 전하고
우리 농축산물을 가정에서 받아보세요

마음을 보냈습니다. 고향에게
정성이 돌아왔습니다. 고향으로부터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를 제외한 원하는
지자체(고향 등)에 기부하면 기부자에게 세제 혜택과
기부금의 일정액을 당해품으로 제공하는 제도

고향사랑기부제 혜택

기부금 세액 공제
10만원까지 전액 공제(10만원 초과분 16.5% 공제)
농축산물 당해품 제공
기부금의 30% 상당 농축산물을 당해품 지급

고향사랑기부제 신청 방법

온라인 : 정부 종합정보시스템 [고향사랑예] / 오프라인 : 전국 농협농민회·농축협
※ 기부 한도액 : 1인당 연간 2,000만원 이내(법인체 불가)

농협중앙회임실군지부 지부장 이재문 / 임실농협 조합장 최동선 / 오수관농협 조합장 정철석 / 임실축협 조합장 한덕수 / 임실치즈농협 조합장 이창식

道, 미래 신산업분야 기업유치 총력

3월 기준 188건 투자협약 산업 생태계 고부가재편 기존신산업 동반 성장 마련

민선8기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3월 말 기준 188건 투자협약(MOU)을 체결하며, 기업으로부터 총 14조 8,143억 원 투자유치를 이끌었다고 1일 밝혔다.

이는 연평균 5조 3,870억 원 규모로서 지난 10년간 연평균 투자유치금액 3조 51억 원 대비 매우 의미있는 성과로 나타났다.

민선8기 투자성과 중 기업수 27.1%에 해당하는 51개 미래첨단산업 기업 투자액이 10조 7,773억 원으로 전체 투자금액 72.7%를 차지하며 전북특별자치도의 산업 생태계를 고부가가치 중심으로 재편하고 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에도 신성장 산업군 핵심기업을 중점 유치하고, 우량기업 유치를 위한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도는 '바이오, 모빌리티, 탄소융합, 방위산업, 반도체 분야' 등 미래 첨단 신성장 산업군에 대한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해 시군별 산업 특성을 고려한 기업 유치를 통해 기존산업과 신산업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산업분야별 최신 트렌드와 시장동향을 반영하고, 주요 유관기관과의 협력 강화를 위해 시군별·산업분야별 투자설명회 및 세미나를 도·시군이 협력해 개최할 계획이다.

도는 기업과 접점이 많고 산업동향 및 기업정보를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 도내 기업유치 유관기관 전문성을 투자유치에 적극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도는 기업유치 관련 도내 범기관

간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보고, 지난 3월말 군산지역에 있는 5개 유관기관 방문을 시작으로, 지역별 순차적으로 기관 간 협업 방안 논의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도에서는 완주 수소특화단지,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를 국가첨단산업단지로 조성하기 위해 사전절차를 이행 중이다.

완주 수소특화단지는 2030년까지 50만평(165만㎡) 규모의 국내 유일의 수소특화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수소전문기업 및 연구기관 유치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수소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해 전북이 대한민국 수소경제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도는 기회발전특구의 확대 등을 통해 수도권 대비 법인세·소득세의 세제 인센티브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기회발전특구는 기업 유치 촉진을 위해 세제 혜택과 재정 지원 등을 제공하는 제도로, 지난해 1차 지정(전주·익산·정읍·김제, 88만평)에 이어 올해 37만평(익산 7만, 남원 16만, 고창 14만) 규모의 추가 지정을 추진하고 있다.

전북자치도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은“전 세계적으로 인공지능, 바이오, 친환경기술 등 첨단 산업분야의 투자가 급증하고 있는 글로벌 경제환경 변화에 대응해 우리 도와 상생할 수 있는 바이오, 모빌리티, 탄소융합, 반도체, 방위산업 등 미래신산업 분야와 함께 시군별 산업 특성을 고려해 기업유치를 추진할 계획이다”며 “도는 앞으로도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실질적 지원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와 기업이 함께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자치도, 기후적응형 하천관리 체계 구축

15개소 22억 사업비 투입 친환경·주민 친화적 방향 하천기본계획 재수립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일 부안군 ‘중복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하류부 주거지 밀집지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부안군 중복천은 지난 2020년 집중호우로 하천이 범람하면서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로 지정됐으며, 이후 행정안전부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공모에 선정됐다.

하지만 도시화 및 기후변화에 따른 홍수 위험 증가로 기존 하천기본계획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재수립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중복천 4.7km 구간에 대한 하천기본계획을 오는 10월 까지 재수립할 예정이다.

이 계획은 부안군이 추진 중인 중복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연계해 주거지 및 농경지의 반복적인 침수 피해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특히 중복천은 하천기본계획 수립 이후 10년 이상 경과한 하천으로, 하도 변화 및 수문 특성 변화로 인해 기존 계획만으로는 홍수 위험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중복천을 포함한 지방하천 15개소에 총 22억 원을 투입해 하천기본계획을 재수립 중이며, 단순한 치수 기능 강화뿐만 아니라 이수 기능과 수생태계 보호까지 고려한 기후적응형 하천관리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송금현 전북자치도 환경산업국장은



<사진=전북도>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1일 부안군 ‘중복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 현장을 방문해 하류부 주거지 밀집지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보하기 위해 친환경적이고 주민 친화적인 정비 방향을 설정해 지속 가능하

고 안전한 하천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전북도, 반려견 동물병원 집중 점검

합동 점검반 구성 평소 불만 민원 접수 항목 동물병원 우선 대상

전북특별자치도가 반려동물 보호자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동물병원의 투명한 운영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오는 5월 16일까지 도내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운영 실태 점검을 강화한다.

이번 점검은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 항목이 기존 12종에서 20종으로 확대에 따른 것으로, 해당 항목의 게시 여부와 운영 적정성을 집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전북자치도와 시군 담당자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직접 동물병원을 방문해 △진료비용 게시 여부 △중대 진료비용 사전 설명 및 동의 절차 준수 △수의사 처방관리시스템 운영 적정성 △처방전 발급 여부 △진료 기록부 작성·보존 △허위·과대광고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특히, 진료비 미게시 병원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

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1차 30만 원, 2차 60만 원, 3차 90만 원이 부과된다.

이번 점검에는 그동안 반려동물 보호자 불만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동물병원이 점검 대상 일순위이며, 점검을 통해 제도 이행 실태를 철저히 확인할 계획이다.

더불어 제도 정착을 위해 동물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진료비 게시 및 처방전 발급 기준에 대한 홍보와 제도 활동도 병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를 통해, 점검의 실효성을 높이고, 동물병원과 보호자가 함께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둘 방침이다.

최재용 전북자치도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점검을 통해 동물병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여 반려동물 보호자들의 신뢰가 우선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과 점검을 통해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영태 기자



<사진=전북도>

새만금청-새만금공사-간척박물관, ‘새만금 나무심기’

제80회 식목일 기념 탄소중립 실현 일조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개발공사(사장 나경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관장 김항술)과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지난 1일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일원에서 ‘새만금 나무심기’ 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과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장, 김항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장 등 주요 간부를 포함해 80여 명의 직원들이 참여해 팽나무, 왕벚나무 등 100여 주를 심었다.

행사가 진행된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국내 유일의 국립간척박물관으로, 기획전시 ‘땅·쌀·삶:계화도 간척사가 관람객들에게 전시되고 있으며,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교육·체험 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다.

이번 행사는 박물관 개관 후 처음으로

진행한 식목일 행사이자, 박물관 주변 경관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세 기관이 합심해 추진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의 조속한 개발을 위해 양 기관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현장 곳곳에 지속적으로 나무를 심고 녹지를 조성해 기술과 자연이 조화를 이루는 새만금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나경균 새만금개발공사장은 “오늘 행사는 단순한 나무심기를 넘어 새만금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다짐하는 시간”이라며 “새만금이 국가경제 성장과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항술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장은 ““이번에 심은 나무들이 새만금 지역의 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탄소중립 실현에도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윤준병 의원 ‘농어촌 주민 등 이동권 보장 법률안’ 대표 발의

농어촌 주민 이동권 보장 새로운 교통체계 구축해야

소멸 위기에 놓은 농어촌·도서벽지 등은 인구 감소에 비례해 교통수요마저 현저히 감소하면서 수도권·대도시와의 교통 양극화는 날로 심화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을 마련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지난 1일 농어

촌·도서벽지 등 공공교통소의지역에 기본적인 교통서비스를 안정적·체계적으로 제공해 주민의 이동권을 보장하는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 보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윤 의원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인구감소 등에 따른 교통수요 부족으로 주민들의 일상적인 이동에 제약이 발생하는 지역을 ‘공공교통소의지역’으로 지정·고시하도록 하고, 5년 단위의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시철도가 운행되지 않는 공공교통소의지역에서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65세 이상 어

르신들의 교통요금을 무임으로 하고, 면제된 운임비용의 100분의 60 이상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윤준병 의원은 “현재 농어촌의 교통시스템은 실질적으로 이미 붕괴된 상태이며, 그 정상화의 길을 수익성·경제성의 논리로 찾을 수는 없다”며 “특히 현재 수도권·대도시 중심의 교통 패러다임의 잣대로 농어촌을 재단할 수 없는 만큼 농어촌 주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새로운 교통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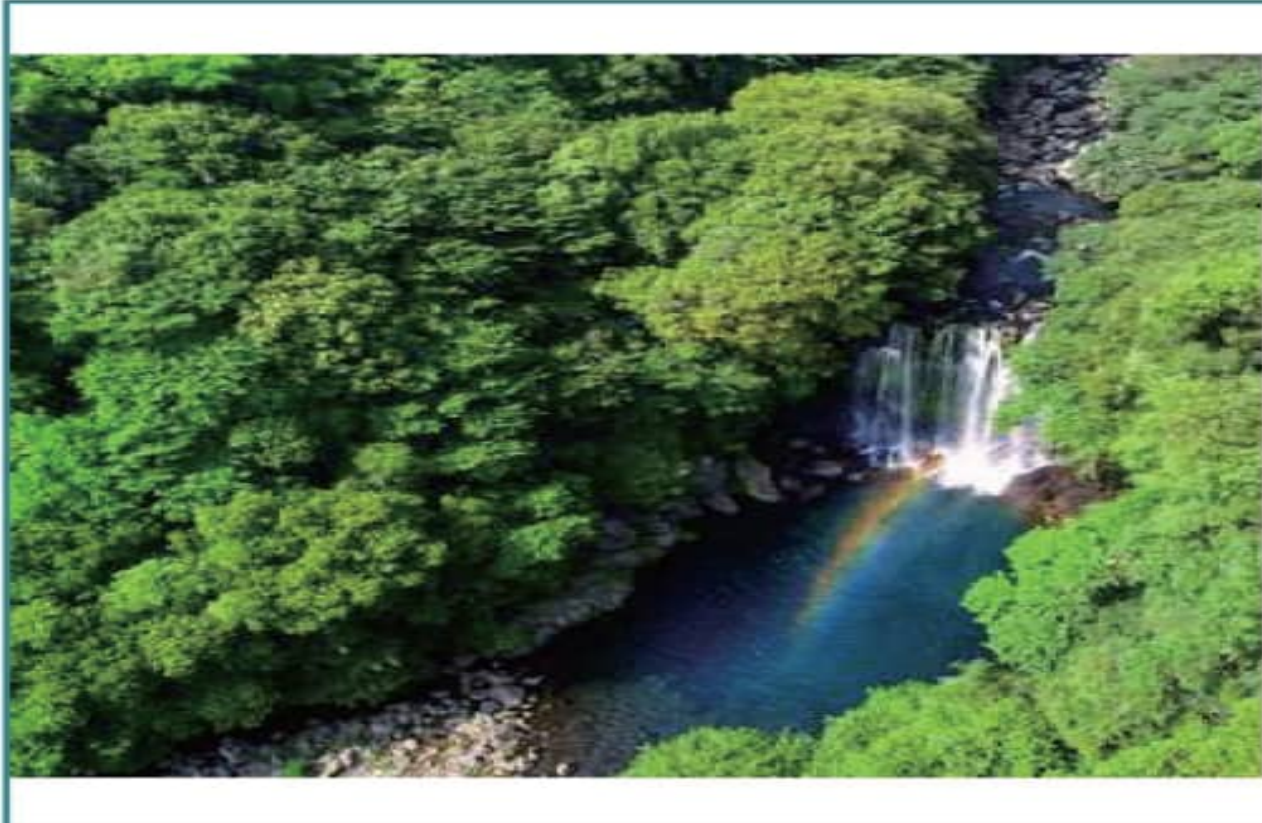
이어 윤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



윤준병 의원

서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임기만료로 폐기된 만큼 제22대 국회에서는 제정이 면밀하게 검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농어촌·도서벽지 지역 주민들도 지역의 차이로 이동권이 차별받지 않도록 제도 개선에 나서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산림의 미래가치 창조로 신뢰받는 SJ 산림조합

- 조합원 가입 자격 및 혜택
 - 자격요건 : 산림소유자(소유면적 990㎡ 이상)또는 임업인 20제과 이상 출자 (1제과 : 5천원)
 - 가입혜택 : 출자금은 2천만원까지 비과세 혜택, 산림사업 지원
- 산주와 임업인을 위한 산림경영지도 서비스
 - 산림경영지도원 배치 현지도 및 상담
 - 산림행정지원
 - 산림·임업정보 제공
 - 어플상담 : “내돈내산”으로 간편문의가능
- 산주를 위한 대리경영제도
 - 산림을 경영하기 어려운 산주와 계약을 체결하여 산림경영일체를 실행해 주는 제도.
- 임업기계 면세유류 구입 지원 서비스
 - 대 상 자 : 임업인 중 영임업 또는 별목업에 종사하는 자 (임야소유 및 임차여부확인)
 - 공급유종 : 휘발유,경유
 - 신청장소 : 전국 시·군 산림조합
- 상호서비스는 SJ 산림조합상조

SJ 전주군산림조합

용진본점 : 완주군 용진읍 운곡4로 9 ☎063)225-8691-4
모래내점 : 전주시 덕진구 안덕원로 175 ☎063)225-9511-2

전주 외국인 관광객 여행만족도 ‘94.1점’

1천여명 대상 설문조사 덕진공원, 새 관광지 부상 전주한옥마을 99.5% 평가

지난해 관광거점도시인 전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대부분이 전주의 먹거리와 볼거리에 만족감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전주시와 전주시정연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주를 방문한 내·외국인 관광객 10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 외국인 및 내국인 관광객 설문조사’ 결과 관광객의 여행 만족도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관광객의 경우 전주 여행 전반적 만족도가 94.1점으로 1년 전보다 4.7점 증가했다. 내국인 관광객은 전주의 ‘먹거리’(맛집, 음식의 맛과 종류 등)와 ‘볼거리’(전통문화유산, 명소, 자연경관 등)에 높은 만족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설문조사는 △관광객 특성 △전주 여행 형태(방문목적, 교통수단, 동반자 유형, 체류기간, 이용숙박시설 등) △소비행태(지출비용, 주요 쇼핑품목 등) △만족도 등 20개 항목에 걸쳐 실시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전주 방문지역을 묻는 질문에는 △전주한옥마을(99.5%) △경기전

(78.8%) △덕진공원(42.6%) △남부시장(32.6%) 순으로 조사됐다.

특히 덕진공원의 경우 지난 2023년 조사(14.3%)에 비해 약 3배 정도 방문율이 증가했으며, 방문지역 중 가장 매력적인 장소에 대한 답변도 △전주한옥마을(40.7%) △경기전(29.5%) △덕진공원(11.4%) 순으로 조사됐다.

또한 내국인의 경우 전주 여행콘텐츠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평균 여행콘텐츠 만족도가 3.77점(5점 척도)으로 ‘보통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항목별로는 ‘먹거리’(맛집, 음식의 맛과 종류 등)에 대한 만족도가 3.98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볼거리 3.94점(전통문화유산, 명소, 자연경관 등) △월거리 3.81점(관광지 내 휴식공간, 공원, 광장 등) 등이 평균(3.77)을 상회하는 만족도를 기록했다.

관광만족도 증가와 더불어 외국인 관광객의 1인당 문화·오락 관련 지출 비용도 전년(3808원)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약 1만6450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한복 체험과 전통문화 체험, 공예품 만들기 등 체험형 관광이 인기를 끌었기 때문으로, 문화·오락 항목에 지출한 관광예 비용도 지난 2023년 17.9%에서 지난해 79.3%로 급격히 증가해 전주가 체험형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입증했다.

국적별로는 동남아시아 관광객이 문화·오락 비용을 가장 많이 지출했으며,



지난해 관광거점도시인 전주를 방문한 외국인 관광객 대부분이 전주의 먹거리와 볼거리에 만족감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전주시>

관광객의 연령이 낮을수록 이 항목에 많이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내국인 관광객의 평균 체류 기간은 2.27일로 집계돼 전년(2.04일) 대비 증가했으며, 단일 전주 여행(2.29일)보다 전주와 인근 지역을 연계한 여행(2.36일)의 체류 기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숙박관광객의 경우 이용한 숙박시설은 △호텔(37.4%) △전통한옥시설(21.2%) △모텔·여관·호스텔(16.2%) △펜션(8.8%) 순으로 조사됐다.

반면 상대적으로 ‘살거리’(기념품, 특산물 등)’(3.43점)와 언어소통(3.82점) 등의 경우 다소 아쉬운 만족도를 기록했다.

이에 전주시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내외 관광박람회 전주홍보관 운영 △시군연계 관광상품 판매 △관광굿즈 개발 △글로벌 지도 서비스 지원사업 등 관광객 수용태세 개선을 위한 사업을 다각도로 추진할 계획이다.

노은영 전주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조사 결과는 전주의 관광 트렌드 변화를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라며 “덕진공원과 체험형 관광의 인기가 높아진 만큼, 내·외국인 모두가 전주의 매력을 충분히 즐길 수 있도록 관광인프라와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선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전주시의회, 주요 사업 집행 실태 점검…결산 검사 돌입

예산집행 적정성 확인 전주시 재정 건전성 강화

전북자치도 전주시의회 결산검사위원회(대표위원 박혜숙)가 전주시의 2024회 계연도 예산집행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결산검사 활동에 들어간다.

지난 1일 전주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결산검사는 전주시의 예산이 계획대로 적절하게 집행됐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오는 4일부터 23일까지 이어진다.

결산검사위원회는 검사 기간동안 △사업 예산의 적정 집행 여부 △불용·이월 예산 발생 사유 △국비 사업 집행·반납 △성과 대비 예산 효율성 △사업별 예산 중복·과다 편성 여부 △재정 운영의 투명성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특히 공모사업 등 대규모 투자 사업의 집행 실적을 점검하고 공사지연이나 부실집행 사례가 없는지 면밀히 분석할

계획이다.

또 복지 예산과 교육, 문화 등 주민과 직결된 사업비가 실질적으로 시민에게 혜택을 주었는지도 꼼꼼히 들여다볼 예정이다.

박혜숙 대표위원은 “시민의 세금이 한 톨이라도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결산검사를 엄격히 진행할 것”이라며 “예산이 애초 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사용됐는지 철저한 검사를 펼쳐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정재근 기자

전주시설공단, ‘도내기생 건강시민 선발대회’ 연다

전북자치도 주시설공단(이사장 이연상)이 전주시민들이 건강한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 특별이벤트 ‘도내기생 건강시민 선발대회’를 개최한다.

지난 1일 공단에 따르면 ‘도내기생 건강시민 선발대회’는 도내기생 국민체육센터 이용객을 대상으로 두 차례 ‘인바디(Inbody, 체성분 분석 기기)’를 통해 체성분을 측정해 점수가 높은 시민을 선발해

포상하는 행사다.

나이나 성별에 상관 없이 ‘월 정기권(강습권)’ 이용객이라면 누구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나이에 따른 신체 상태 등을 고려해 ‘일반부(19~64세)’와 ‘어르신부(65세 이상)’로 나눠 ‘건강시민’을 선발한다.

합산 점수가 높은 ‘건강왕’뿐 아니라 1차 측정 이후 2차 측정 결과 점수가 가장 상승한 ‘노력왕’도 선발한다.

대회는 이달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진행되며, 1차 측정은 이달 1~3일, 2차 측정은 7월 1~3일 실시된다.

수상자들에게는 도내기생 카페 쿠폰이 제공된다. 최우수상은 3만 원, 우수상은 2만 원, 장려상은 1만 원 상당이다.

특히 최우수상 수상자는 ‘도내기생 건강시민 명예의 전당’에 등재된다.

또 입상자 전원에게 ‘도내기생 건강시민 마크’가 지급된다.

/정재근 기자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로템IN심리상담센터, ‘맞손’

학대피해아동 맞춤형 심리치료 프로그램 운영

전북자치도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관장 김미선)은 지난 1일 로템IN전북심리상담센터(대표 김병욱)와 함께 전주 지역사회 내 학대피해아동들에게 전문적인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지속 가능한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로템IN전북심리상담센터는 전주시 지역사회에서 아동과 청소년을 포함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심리 상담 및 치료를 제공하는 전문 기관으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들에게 정서적 안정을 지원하며 정신건강증진을 돕고 있다.

또한, 로템IN전북심리상담센터는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학대피해아동을 위한 맞춤형 심리 상담

을 제공하고, 트라우마 극복과 자존감 회복을 돕는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대피해아동들이 심리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며, 전문적인 상담과 보호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김미선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상처를 입은 아동들이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고, 내면의 힘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는 로템IN전북심리상담센터에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학대피해아동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유 받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병욱 로템IN전북심리상담센터장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해 아이들의 자신감을 키우고 다 나은



전북도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은 로템IN전북심리상담센터와 함께 지역사회 내 학대피해아동들에게 심리 지원을 제공하고 보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전북도>

미래를 꿈 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전주완산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에 의거해 2022년 7월에 개소했다. 또한 동법 제46조에 의거

해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의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 아동학대의 재발 방지 등 사례관리 및 아동학대예방사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다.

/정재근 기자



전북소방본부, 봄철 산악사고 예방 총력

최근 3년간 산악사고 2천여건 발생 안전대책 본격 추진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본부장 이오숙)는 산행 인구가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지난 1일부터 등산객 안전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활동을 위해 ‘산악사고 안전대책’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도내에서 발생한 산악사고는 총 2,015건으로, 지난 연도별 2022년 719건, 2023년 664건, 2024년 632건이다.

이로 인해 1,046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산악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주요 산을 분석한 결과, 덕유산(192건), 대둔산(159건), 모악산·구봉산(각 137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4년에는 대둔산(67건)에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전북소방은 산악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산악안전지킴이 운영 △안전시설물 점검 및 보강 △GIS 공간 분석을 통한 위험지역 발굴 및 개선 등 다양한 대책을 추진한다.

먼저, 최근 3년간 산악사고가 많이 발생한 덕유산 등 주요 등산로 12개소를 선정하고 등산로 입구에 ‘산악안전지킴이’를 4월부터 오는 5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또 지자체 및 국립공원관리공단과 협력해 주요 등산로 안전시설물을 점검·보강하고, 산악사고 특성상 신속한 수색과 구조 접근성이 중요한 만큼, GIS 분석을 활용한 최적 경로 도출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한 구조역량 강화에도 나선다.

이오숙 전북소방본부장은 “산악사고를 예방하려면 단독 산행을 피하고,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는 등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며 “전북소방도 산악사고 예방과 신속한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

현수막·벽보·전단 수거시 1인당 1주 최대 5만원 지급

전북자치도 전주시는 오는 9일부터 현수막과 벽보, 전단(명함형 제외) 수거시 1인당 1주 최대 5만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지급키로 했다.

지난 1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민들에게 쾌적한 거리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2025년 전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를 시행할 계획이다.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는 주민등록상 전주시 거주자 중 만 65세 이상 시민과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이 불법 유통광고물을 수거해 오면, 종류와 크기에 따라 1인당 1주 최대 5만 원, 월 최대 20만 원까지 보상을 지급하는 제도다.

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은 △현수막=1장당 1000원 △족자형 현수막=1장 500원 △벽보 100장당=5000원

△전단=100장당 2000원이며, 명함형 전단의 경우 보상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거보상제는 올해 계획된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운영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시민은 수거광고물을 신분증 및 통장 사본과 함께 주민등록 주소지 동 주민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전주시는 올해 전주시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사업 참여자에게는 구청에서 수거한 폐현수막을 재활용해 제작한 불법광고물 수거용 가방을 제작물량이 소진될 때까지 1회 신청당 최대 3개까지 배부할 예정이다.

김성수 전주시 건축과장은 “사업 참여자분들께 안전에 유의하며 불법 유통광고물을 수거하실 것을 당부드림. 앞으로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재근 기자



<사진=완주군>

완주군자봉, 청송군 이재민에 밥차 지원

사)완주군자원봉사센터(이사장 기성)가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1일까지 청송군 국민체육센터에서 ‘참 좋은 사랑의 밥차’를 운영하며 산불 피해 이재민들에게 식사를 제공했다.

자원봉사자 8명과 자원봉사센터 직원 6명 등 총 14명이 3일간 매끼 250~300인분 식사를 제공하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현재 청송군 국민체육센터에는 220

명의 이재민을 포함해 행정, 군인 자원봉사자 등 400여 명이 상주하고 있다.

최영만 완주군자원봉사센터장은 “산불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송군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한다”며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따뜻한 마음을 담아 지원하고 끝까지 함께 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병곤기자

전주시, 농생명기업 16개사 고부가 육성

시장진출·제품 고급화·마케팅 등 4개 분야 맞춤형 지원
전문가 초청 재직자 역량 강화 교육도 함께 진행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지역 농생명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맞춤형 지원정책에 나섰다.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원장 김상남, 이하 연구원)은 1일 '2025년 전주시 농생명 유망기업 맞춤형 육성사업'에 참여하는 성보유한회사 등 16개 기업 대표와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사업은 전주시역 농생명 관련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맞춤형 육성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핵심으로, 연구원은 전주에 주소를 둔 농생명 관련 수혜기업을 모집한 후 선정평가를 거쳐 최종 지원기업을 선정했다.

선정된 기업에는 기업 성장을 위한 4

개 분야의 맞춤형 프로그램이 지원될 예정이다.

주요 지원 내용은 △시장진출 상용화 지원 3개 기업(농업회사법인 한국오가닉, ㈜홍시궁, 성보유한회사) △시제품 제작 및 제품 고급화 지원 6개 기업(씨엔알코스메틱스(주), (유)제이엘브리지, 농업회사법인 ㈜자연엔미, 농업회사법인 웰앤뷰(주), 휴먼피아코스텍(주), 해미강전통발효식품) △마케팅 홍보 지원 5개 기업(로크, 들관열매, 아워네이처, 오랑도랑제과점, ㈜누리팜) △수요 맞춤형 지원 2개 기업(바이오모아메디칼(주), 노아팻바이오) 등이다.

이와 함께 연구원은 이날 협약식 이후에는 강병욱 SCDD(주) 총괄본부장을 강



전북자치도 전주시가 지역 농생명기업의 성장 및 경쟁력을 키우기 위해 맞춤형 지원에 나섰다. <사진=전주시>

사로 초청해 참석 기업을 대상으로 '재직자 역량강화 교육'도 실시했다.

김상남 (재)전주농생명소재연구원장은 "전주시 관내 농생명 관련 기업을 발

굴하고 맞춤형 육성지원을 통해 지역 특산자원의 고부가가치 산업화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전북농협은 1일 정읍시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화재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을 위해 일손돕기를 진행했다. <사진=전북농협>

전북농협, 정읍 산불 피해 농가 복구 지원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1일 정읍시 산불 피해 현장을 방문해 화재로 인해 실의에 빠진 농업인을 위로하고 조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일손돕기를 진행했다.

지난달 25일 고창군 성내면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은 인접한 정읍시 소성면 화룡리 금동마을을 덮치며 주택 13채와 창고 6동, 비닐하우스 9동 등 총 28동과 임야 4ha를 소실해 많은 이재민을 발생했다.

/김영태 기자

농촌진흥청, 산불피해농가 다각적 지원 '영농 재개 최선'

산불 맞춤형 기술지원 추진
농작업 대행·기계 무상 수리
3만6천톤 종자 지원도

관재한 농촌진흥청장은 1일 경북 산불 발생으로 피해를 본 의성군 과수 농가를 찾아 농업인을 위로했다.

이 자리에서 권 청장은 "산불 피해지역 복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권 청장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피해가 큰 농업인들이 빠른 시일 안에 영농을 재개하고 일상에 복귀할 수 있도록 가용 인력과 자원을 동원해 기술지원과 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방문한 피해 농가에는 사과나무의 열화상 피해 정도를 조사해 고사한 나무는 뽑아내고, 회복이 가능한 나무는 영양제 살포, 꽃눈 확보, 병해충 방제 등을 실시해 정상적인 생육이 가능하도록



관재한 농촌진흥청장은 1일 경북 산불 발생으로 피해를 본 의성군 과수 농가를 찾아 농업인을 위로했다. <사진=농촌진흥청>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경북·경남 산불로 피해가 발생한 농가를 대상으로 다각적인 기술지원을 추진, 봄철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힘을 계획이다.

특히 전국 농업기술센터 농기계 안전

전문관 및 보유 농기계를 활용해, 농작업 대행과 병해충 방제 및 영농 현장 복구를 돕고 피해가 심하지 않은 농기계는 무상 수리를 지원한다.

국립식량과학원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 보유한 여분 종자 12개 작목

36,000톤을 산불로 종자를 소실한 농가에 배부할 계획이다.

또 전국 시군농업기술센터 종자 알선창구를 통해 추가 종자 지원이 가능한 지역을 연결, 종자 확보에 어려움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피해지역 영농 기술지원 수요를 파악해 4월 말까지 지역별·농가별 맞춤형 현장 기술지원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현재까지의 피해 현황과 현장 기술 수요를 오는 6일까지 1차 파악해 선제적으로 기술지원할 방침이다.

산불 피해가 큰 농가를 중심으로 농촌진흥청·도 농업기술원·시군농업기술센터 합동 일손 돕기 활동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이번 산불로 방제 약제를 소실한 농가에는 방제비 유보액(20억)으로 구매한 방제 약제를 추가 배정, 과수화상병, 탄저병 등 병해충을 적기 방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 전북애향장학재단과 함께 전주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2025학년도 전북애향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실시했다. <사진=전북은행>

전북은행, 애향장학금 1억 전달...34년간 17억 누적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전북애향장학재단(이사장 윤석정)과 함께 전주그랜드힐스턴호텔에서 '2025학년도 전북애향장학생 장학증서 수여식'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전북은행은 우수한 성적으로 입학한

도내 출신 대학생들이 지역발전을 이끌어 나갈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장학금 지원 사업을 꾸준히 펼치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는 총 1억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특히 전북은행은 전북애향장학재단에 지난 1992년부터 올해까지 34년 동안 총 17억 5,000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올해 경기침체 등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장학생을 확대해 나눔 문화 확산과 선한 영향력 확대에 앞장섰다.

장학증서 수여식에는 전북애향장학

재단 윤석정 이사장,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서거석 교육감, 전북특별자치도유창회 정무수석, 백경태 대외경제소통국장, 전북은행 백종일 은행장, 전북애향장학재단 이사, 장학생 및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북애향장학재단 윤석정 이사장은 "매년 심사를 거쳐 선정된 신입 대학생과 이중 B학점을 유지한 재학생에게 4년 재학기간 동안 장학금을 지원하고 있다"며 "장학 사업을 위한 전북은행의 꾸준한 지원이 큰 버팀목이 되고 있어 감사하다"고 전했다.

백종일 은행장은 "이번에 전달되는 장학금이 장학생들의 희망찬 앞날을 위한 소중한 마중물이 되길 바라며,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인재로 성장해 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농협은행 전북, 멸종위기식물 전주서원초에 전달...‘교실숲 조성’

NH농협은행 전북본부(본부장 김성훈)는 1일 전주서원초등학교에 친환경 녹색교실인 'NH교실숲' 제15호를 조성했다.

이날 행사에는 하양진 농협은행 전주시지부장, 이미란 전주서원초등학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NH교실숲 제15호' 현판식을 갖고, 150명의 학생들에게 멸종위기 II급식물인 파초일엽과 공기정화식물인 아레카야자 등 150여 그루를 전달했다.

'NH교실숲'은 학생들에게 자연과 함께 하는 건강한 학습 환경을 제공하고, 지구살리기 등 실천적 환경 교육을 위해 NH농협은행 전북본부가 ESG 경영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식물을 담은 스미 화분은 투명페트병



NH농협은행 전북본부는 1일 전주서원초등학교에 친환경 녹색교실인 'NH교실숲' 제15호를 조성했다. <사진=농협은행>

을 업사이클링해 제작했으며, 이번 교실숲 조성으로 인해 교내에는 연간 이산

화탄소 28kg 및 미세먼지 82g이 흡수되고, 산소 343kg이 생산될 것으로 기대된

다.

멸종위기 식물을 양육한 ㈜트리플레닛은 농협은행 전북본부가 학교에 제공한 150그루만큼 또 다른 멸종위기식물 150그루를 양육해 생물 다양성 보존 사업을 이어나간다.

하양진 지부장은 "4월1일 '멸종위기종의 날'에 파초일엽 식재체험을 서원초에서 하게 된 것을 의미있게 생각한다"며 "반려식물과 함께 쑥쑥 성장해 나가길 응원한다"고 말했다.

농협은행 전북본부는 전북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어 함께 만들어가는 'NH교실숲'을 지속적으로 조성할 계획이며, 2050 탄소중립 실천과 청소년 환경인식 제고를 위해 맞춤형 사회공헌활동을 꾸준히 펼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전북대병원, 자폐증 인식 개선 블루라이트 캠페인 진행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양종철)이 세계자폐인의 날을 맞아 블루라이트(Light it up blue: LIUB)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블루라이트 캠페인은 전 세계 지역 명소가 파란 불을 밝혀 자폐증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상징하는 글로벌 캠페인이다.

전북대병원 행동발달증진센터(센터장 박태원)에서는 세계자폐증인의 날을 기념해 자폐증 환자에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24일부터 29일까지 5일간 전북맹아학교와 함께 그림 전시회를 진행하는 등의 블루라이트 캠페인에 참여



전북대학교병원은 세계자폐인의 날을 맞아 1일 블루라이트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전북은행>

했다.

자폐성 장애를 가지고 있는 학생들의 작품을 소개한 이번 그림 전시회는 자폐인에 대한 인식 개선의 계기를 마련하고 사회적 이해와 공감을 높일 수 있어, 내·외부 고객들에게 큰 반응을 얻었다.

전북대병원은 지난 2019년 보건복지부로부터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로 지정돼 △소아정신과 정문의 △행동치료사 △코디네이터 등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들이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요구에 맞춰 체계적인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국내이비스 전북지부(지부장 김윤주) 사무실에 지역내 위기가정 아동을 돕기 위한 쌀 150kg이 1일 전달됐다.

이날 전달된 쌀 150kg은 사)전북특별자치도사회적기업협의회(회장 이재배)의 지역민 위한 사람의 쌀 지원으로 마련됐다. 전달식에는 국내이비스 전북지부 김윤주 지부장, 사)전북특별자치도사회적기업협의회 이재배 회장, 임원진이 참석했다.

전달된 쌀은 도내 저소득층 및 위기

가정에 지원될 예정이다. 국내이비스 전북지부는 나눔인성교육, 세계시민교육 등 사회개발교육사업과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나눔 문화 확산에 앞장서고 있다.

이재배 전북특별자치도사회적기업협의회 회장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 사회 나눔 역할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고민하고 실천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김윤주 국내이비스 전북지부장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매일 한 끼 식사 걱정을 하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내외 위기가정 지원을 위한 후원을 희망하는 경우 국내이비스 전북지부를 통해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임실치즈농협
SINCE 1967 대한민국 대표치즈

언제 어디서든 임실치즈를 즐길 수 있는 **임실치즈 푸러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앞까지 간편하게 배송되는 구독 서비스를
QR코드로 편리하게 접속하세요!

택배주문전화 063_640_6426
고객상담센터 063_640_6464
결제계좌 농협 178961-51-001093 (예금주 : 임실치즈농협)

~20% OFF

임실치즈농협과 함께 성장할 판매점 사장님을 모십니다.

모집대상
지원혜택
취급가능품목
개설절차
문의 및 신청

전국 각지역, 임실치즈 유통 및 판매점 운영 희망자
프로모션 및 판촉지원, 성과기반 보상지원
소매용 치즈제품, 식자재 치즈제품, 치즈반제품(카드)
사업신청 ▶ 본점배방 ▶ 서류제출 및 검토 ▶ 개설완료
063)640-6464 (임실치즈농협 마케팅사업부) www.ischeese.co.kr

반제품
유통사업자
모집

반제품 : 모짜렐라치즈 볼력형(카드)

- 청정 지리산 자락의 좋은 환경에서 자란 젖소의 원유를 사용합니다.
- 반세기 이상 축적된 노하우로 만들어 타사 제품에 비해 스트레칭 능력이 탁월합니다.
- 반제품으로 만든 돈까스, 핫도그 등이 레스토랑 및 고속도로 휴게소, 학교급식에 납품되어 높은 인지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합장 이창식입니다. 우리 농협 임직원 100여명은 축산농가의 소득증대 및 국민 식생활 개선을 위한 생산자 단체로서 역할을 다하며 한국치즈의 원조라는 자부심으로 최상의 제품을 생산하여 소비자 여러분께 공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상임이사: 이승계 | 이사: 소병천, 정명근, 정승열, 최건호, 강준호, 김미용 | 사외이사: 최형재, 이종환 | 감사: 홍득표, 이상옥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임실을 봉향로 329
063 640 6464 www.ischeese.co.kr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 농수산물 직거래 장터 운영

군산시(시장 감임준)가 <2025 군산새만금마라톤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과 관람객들을 위한 '농수산물 홍보 직거래 장터'를 연다.

27개 업체가 참여하는 이번 장터는 딸기, 떡, 군산짬뽕라면, 식혜, 부각, 박대, 반건조 생선, 꽃게장, 김 등 다양한 상품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인기 상품인 ▲알팍 간장게장 (67% 할인) ▲사랑해 박대꾸이 스낵 (50% 할인) ▲볶음귀리, 비타민 딸기젤리 (각 45% 할인) ▲동그리 구운감자칩 (36% 할인) 등은 최대 67%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된다.

이번 장터는 마라톤대회의 성공을 기원하는 한편, 참가 선수들과 관람객들에게 신선하고 품질 좋은 군산의 농수산물을 알리고자 마련되었다.

특히 선수들에게는 상품권을 기념품으로 제공해 품질 좋은 상품을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먹거리 장터는 마라톤이 개최되는 군산 월명 종합경기장의 월명 게이트빌딩에서 오는 6일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금강 따라 떠나는 유람선 익산 관광의 새 물길 뜬다

익산 금강의 수려한 자연환경을 활용한 유람선이 첫 항해를 시작한다.

익산시는 옹포면에 위치한 (유)금강유람선이 시민과 함께하는 신규취향 기념 무료 운항에 나서며, 지역 관광의 새 물꼬를 텃다고 1일 밝혔다.

유람선 '곰개나루호' 운항은 익산·부여·서천 3개 시군을 연결하는 노선으로, 관광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제공하게 된다.

곰개나루호는 지난해 행정안전부 이차보전 사업을 통해 새롭게 건조된 21톤, 47인승 규모의 유람선으로, 지난달 7일 유선 면허를 정식 취득하며 운항 기반을 마련했다. 이날 첫 항해에는 시민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유람선이 출항하는 옹포 곰개나루 일대는 성당포구마을, 용안생태습지공원, 바람개비길, 익산 공공승마장 등 다채로운 관광자원을 갖췄다. 이번 유람선 운항으로 지역 관광 자원이 수상 분야까지 확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공동방제단' 가동... 가축전염병 체계적 예방

정읍시가 가축전염병 예방과 신속한 방역 대응을 위해 '공동방제단' 운영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방역 인프라가 부족한 소규모 농가, 전통시장, 밀집 사육지역을 대상으로 순정축협 공동방제단을 동원해 체계적인 소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총 878호의 소규모 농가, 전통시장 3개소, 밀집 사육지역 4개소에 7개 방제단으로 구성된 공동방제단을 투입하고 연 24회 방역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총 4억 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방역 장비와 소독약품 구입비를 지원한다.

전통시장과 밀집 사육지역은 가금류 운반 차량의 진출입로, 인접 주요 도로·농장 주변을 소독차를 활용해 철저히 소독하며 담당 공무원의 지도 아래 방역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전염병 발생 위험이 높은 시기에는 집중 방역을 통해 축산업 전반의 안전망을 구축할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13m 상공 스릴 익산 '롤글라이더' 개장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체험 5일부터 정식 운영

익산시가 왕궁보석테마관광지 방문객들에게 스릴 넘치는 특별한 경험을 선사한다.

익산시는 오는 5일부터 왕궁보석테마관광지 가족공원에 신규 놀이체험시설 '롤글라이더'를 정식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롤글라이더는 트롤리에 탑승해 높이 13m, 길이 360m의 레일을 따라 최대 속도 30km/h로 하늘을 가르며 숲과 저수지 주변의 경관을 감상할 수 있는 이색 체험시설이다.

시는 정식 개장을 앞두고 2주간 시범 운영을 실시해 다양한 연령대의 이용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차질 없는 운영을 위해 시설 보완과 점검 등을 마쳤다.

롤글라이더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1회차당 50분씩 총 6회 운영되며, 안전한 운행을 위해 시간당 24명으



익산시는 오는 5일부터 왕궁보석테마관광지 가족공원에 신규 놀이체험시설 '롤글라이더'를 정식 운영한다

<사진=익산시>

로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구간마다 안전요원이 배치된다. 또한 긴급 상황 대응 및 안전 교육, 전문기관의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에도 철저하게 대비한다.

시는 정식 개장을 기념해 롤글라이더 이용객을 대상으로 익스트림슬라이드 타워 무료 체험, 선착순 기념품 증정 등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롤글라이더 도입으로

왕궁보석테마관광지가 더욱 다채로운 체험이 가능한 명소로 발돋움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방문객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철저한 안전관리를 최우선으로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왕궁보석테마관광지는 보석박물관, 공룡테마공원, 익스트림슬라이드 타워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통합관제센터 AI 시스템...신속 검거

2025년 우수사례 선정

작년 신고 94회 안전 기여

군산시 통합관제센터(이하 '센터')가 '인공지능(AI)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을 이용, 절도범을 검거해 화제다.

사건은 지난달 26일 오후 7시경 나운동 일원에서 일어났다.

중고 거래 앱 당근마켓을 통해 금목걸이 직거래를 유도한 절도 사기범이 400만 원 상당의 금목걸이를 건네받은 뒤 오토바이를 타고 그대로 도주한 것이다.

이에 피해 신고를 접수한 센터는 '인

공지능(AI)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을 가동, ▲범인의 인상착의 ▲옷차림 ▲특정 정보인 오토바이까지 검색하여 절도범의 위치를 신속하게 추적했다.

이후 이동 경로와 동선을 파악해 절도범의 위치를 확인한 센터는 경찰에 정보를 제공해 조기 검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번 사건에 공을 세운 군산시 '인공지능(AI) 지능형 선별 관제 시스템'은 2025년 행정안전부 지자체 통합관제센터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우수상을 받기도 했다.

시는 이번 사건 해결로 군산시 CCTV 통합관제 시스템 역량의 우수성과 선

도적인 역할을 재확인했다고 평가했다. 또한 앞으로도 체계적인 시스템 운영을 통해 사건·사고의 신속 대응 및 범죄예방, 안전 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점차 다양해지는 사고와 범죄를 적극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인 인공지능(AI)기술 도입 및 개선 등을 통해 시민들이 '안전한 스마트 도시 군산'을 만들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 통합관제센터는 지난해 관계요원이 이상을 탐지하여 경찰에 신고한 건수는 총 94회로 시민 안전에 기여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원활'

현장 브리핑 내년 완공 목표

군산시는 1일 현장 브리핑을 통해 산북동 산북중학교와 나운동 부곡사거리를 연결하는 4토지~리츠프라자호텔 도로개설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도로개설 및 확장공사는 도로 연장 1km, 터널구간 270m로 터널 내 2차로와 인도도를 설치하는 사업이다.

시는 2025년 상반기까지 터널구간 굴착을 끝낸 후, 하반기 내 라이닝(덧뚜기)콘크리트 타설을 실시해 2026년 하반기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총공사비는 280여 원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 지역 등 지원사업을 통해 공사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았다.



시는 공사환경은 작업자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했으며,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철저한 근로자 교육도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안전 시설물 설치, 주요 건물에 대한 소음과 진동 계측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도로 인프라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투자와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방침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시니어 의사 보건소 의료 공백 해소 한몫

조규홍복지부장관 '적극 검토'

정읍시가 농촌 보건지소의 의료 공백을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시니어의사 운영 모델이 정부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달 31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부보건지소를 방문해 농촌 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경험 많은 의사들의 활동 현황과 효과를 직접 살폈다.

현장에는 이학수 시장과 최병관 전북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임경수 고부보건지소장(전 정읍아산병원장), 이필량 충남 보령 아산병원장이 함께했다.

시는 읍·면지역 15개 보건지소에

서 진료를 맡아왔던 공중보건지사 배치 수가 최근 3년간 절반 이하로 줄어 2025년에는 배치 가능한 의사가 1~2명 정도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자 지난해 11월, 전국 최초로 은퇴한 시니어 의사를 채용해 공백을 메우고 있다.

현장에서 임경수 지소장과 이필량 병원장은 "정읍은 정이 많고 음식도 맛있어 시니어 의사들이 정착하기에 좋은 도시"라며 "여건만 갖춰진다면 더 많은 시니어 의사를 섭외해 정읍에서 재능 기부 형식으로 계속 봉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이학수 시장은 "시니어 의사들이 가족이 함께 거주할 수 있도록 숙소

마련이 필요하다"며 주택 제공과 인건비 예산 지원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이에 복지부에서는 현재 전국 시니어 의사 수요를 조사했다.

예산 범위 안에서 올해 하반기부터는 기존 보건의원뿐만 아니라 보건지소까지 시니어 의사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거 지원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와 협의해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시니어 의사 활용을 포함한 다양한 방법으로 농촌 의료 서비스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만들어가겠다는 계획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민역사기록관, 1호 기증식

개관 100일 맞이

기증자 정인원씨, 112건 기증

익산시민의 손으로 수집된 귀중한 기록물이 지역의 소중한 역사 자산으로 남는다.

익산시는 익산시민역사기록관 개관 100일을 맞아 1일 시민기록물 기증식을 개최했다. 이날 제1호 기증자인 정인원씨가 가문에서 대대로 보관해 온 기록물 112건을 익산시에 기증했다.

기증된 기록물은 배산을 사패지(賜牌地)로 받아 문중산으로 운영하고 있는 연일 정씨 가문의 것으로, 모은 정동식과 그 부친 만포 정재호가 받은 △훈배 △과지 △교지를 비롯해 고서 25건과 고문서 87건이다.

특히 정재호의 효행과 충절이 담긴 '통문', '훈령' 등은 조선시대의 사회와 가치관을 보여주는 귀한 자

료로 역사적 가치가 크다.

또한 조선시대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호구단자'와 '간찰'을 비롯해 전북 유학자들의 교류를 확인할 수 있는 '청금안', '전북교임록' 등은 익산 지역학 연구 자료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재호의 시와 글들을 엮은 문집인 '만포집'도 눈길을 끈다. 정재호는 68세에 문과에 급제했으며, 광무 8년(1904년) 정문(旌門)이 세워지며 그의 충절이 기려졌다.

시는 익산시민역사기록관의 기록물을 디지털화하고, 시민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기록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기록물 기증은 익산시민역사기록관 누리집에서 신청하거나 전화(063-859-4622)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청년·신혼부부 주거비 부담 낮춘다

정읍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2025년 상반기 청년·신혼부부 보급자리 이자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전세, 매입, 신축 등 주택 마련을 위해 받은 대출잔액에 대해 연 1%,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이자율 2%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특히 최대 10년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가능해 실질적인 주거안정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지원 대상은 정읍시에 6개월 이상 거주한 청년(18세~45세 이하, 연소득

5000만원 이하)와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10년 이내, 부부합산 연소득 8000만원 이하)로, 자격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은 4월 1일부터 25일까지이며, 신청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정읍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을 통해 확인하거나,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063-539-5088)으로 문의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수요일엔 대중교통 타고 출근해요"

익산시가 친환경 교통문화 조성과 청사 주차 공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본격 시행한다.

익산시는 매월 첫째 주 수요일을 '대중교통 이용의 날'로 지정하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버스·도보·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을 적극 권장한다고 1일 밝혔다.

이날 정현을 익산시장은 4월의 첫날을 시민과 함께하고자 시내버스를 타고 출근하는 것으로 이번 캠페인의 첫발을 내디뎠다.

정현을 시장은 버스에 탑승한 시민들과 소통하며, 편리한 청사 이용과 지

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익산을 만들어가는 시작으로 대중교통 이용의 날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시는 대중교통 이용의 날 운영과 함께 분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국별 '대중교통 이용 요일제'도 병행 운영한다. 이를 통해 기존 청사 주차장 흠뻑제 운영과 함께 주차 수요 분산과 교통혼잡 완화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신청사 입주 이후 민원인 전용 주차구역 운영과 직원 주차 흠뻑제 운영에도 불구하고, 직원과 방문인 급증에 따른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는 조치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해경, 양귀비 제배 등 마약류 집중단속

1일 군산해양경찰서는 오는 7월 31일까지 4개월간 대마·양귀비 등을 재배하거나 유통하는 등 불법 마약에 대해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양귀비는 주로 5월에서 6월 사이에 개화를 시작하는데 자생력이 뛰어나고 씨앗이 바람을 타고 쉽게 퍼지기 때문에 뒷밭, 화단에서 발견되기 쉽다. 또한 마약용 양귀비와 관상용 양귀비는 일반인이 쉽게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관상용으로 착각하고 기르다 적발되기도 한다.

양귀비꽃 열매에서 추출한 알칼로이

드 성분은 마약의 제조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양귀비와 대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양귀비의 재배 및 대마의 흡연·섭취·소지·허가받지 않은 재배등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해경은 어촌·도서지역의 마을회관과 노인정 등을 직접 방문하여 마약성분이 포함된 대마·양귀비 밀경작(密經作) 금지 홍보에 나서는 한편 비닐하우스, 텃밭, 정원 등지에서 불법으로 재배하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순창, 북서부권 농촌융복합지구 조성

공모 선정 65억 국도비 확보 구립면 농촌보호지구 지정

순창군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추진한 ‘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른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 공모에 최종 선정되는 쾌거를 이뤘다. 이번 선정으로 국비 50억원, 도비 15억원 등 총 65억원의 국도비를 확보했으며, 군은 이번에 확보한 국도비에 군비를 추가해 총사업비 100억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촌특화지구형 농촌공간정비사업은 주거와 산업, 융복합산업, 경관 등 다양한 기능을 정비하고 육성함으로써 농촌 지역의 균형 발전과 정주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군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주민 설명회를 수차례 개최하며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했다. 또한 농식품부에서 실시한 현장평가와 대면 평가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을 인정받아 최종 선정되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사업 선정에 따라 군은 구립면 소재지를 ‘농촌보호지구’로 지정하고, 현재 진행 중인 임산물 산지유통센터와 연계해 두릅, 복분자 등 지역 특산 임산물을 중심으로 한 생산, 가공, 유통, 체험이 연계된 순창 북서부권 ‘농촌융복합산업지구’를 조성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임산물 가공·유통 체계를 확립하고 체험 관광과 연계한 6차 산업화를 통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 지역 내 재배

기술 향상과 전문인력 양성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특히 농촌마을보호지구로 지정된 구립면 소재지에는 최근 증가하고 있는 농촌유학생과 귀농·귀촌인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통해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 주민 쉼터를 조성해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예정이다.

최영일 순창군수는 “이번 100억 규모의 농촌공간정비사업 선정은 순창 북서부 지역의 획기적인 발전 기회”라며, “구립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한 농촌마을보호지구 지정을 통해 고령화된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주환경 개선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 새 문화관광 랜드마크 ‘달빛정원’ 뜬다

미디어아트관 ‘피오리움’ 문화·관광 융합 거점 기대

남원시가 31년간 방치돼온 구)비사별콘도 부지(어현동37-84)를 ‘달빛정원’으로 재탄생시켜 제95회 춘향제를 맞아 시민과 관광객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문화체육관광부의 계획공모형 지역관광개발 공모사업에 선정돼 119억원이 투입된 달빛정원은, 오랫동안 방치돼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해온 폐자원시설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미디어아트 실증시설인 ‘피오리움(Fiorium)’을 중심으로 융복합 콘텐츠를 조성해 지역의 문화적 가치를 높이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재탄생시켰다.

지역 문화와 관광을 융합한 ‘달빛정원’은 남원의 전통자원과 현대적 기술이 결합된 혁신적인 공간으로, 지역민 주도의 창작 활동과 관광자원 개발을 통해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핵심 시설인 피오리움은 ‘새롭게 피어나는 남원의 빛’을 주



남원시가 31년간 방치되어온 구)비사별콘도 부지를 ‘달빛정원’으로 재탄생시켜 제95회 춘향제를 맞아 시민과 관광객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사진=남원시>

제로 지역 문화와 미디어 아트를 융합한 몰입형 전시를 선보인다. 특히, 관람객의 반응에 따라 변화하는 인터랙티브 전시는 남원만의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를 창출하고, 방문객들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것이다.

또한, 달빛정원은 기존의 광한루원을 중심으로 한 관광 동선에서 벗어나, 지역민이 주도하는 새로운 관광 동선을 형성해 지역 예술인과 창작자들이 교류할 수 있는 문화 창작·교류 거점으로

발전할 것이다.

남원시는 이번 사업을 시작으로, 광한루원과 달빛정원 배후의 함파우 아트밸리를 연결하는 문화·관광 벨트를 형성해, 지역 예술인들에게 창작 및 교류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남원만의 독창적인 문화 콘텐츠가 중심이 되는 관광자원을 개발하며 지역 관광의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은 1일 청원월례회에서 6.25참전유공자인故배봉환 하사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사진=완주군>

완주군, 6.25참전유공자 유족 무공훈장 전수

완주군이 1일 전 직원들이 참여한 청원월례회에서 6.25참전유공자인故배봉환 하사의 유족에게 화랑무공훈장을 전수했다.

무공훈장은 전시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전해 뚜렷한 무공을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는 것으로,故배봉환 하사는 6.25전쟁 시 강원 금화지구 전투 중 전사했고, 그 공을 인정받아 올해 무공훈장을 수여 받게 됐다.

6·25전쟁 무공훈장 주인공 찾기

완주군은 올해 1월부터 호국보훈수당을 3만 원 인상하고, 지원대상자를 확대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은 지난달 31일자로 순창군 보건의료원 신임 원장에 온기곤 박사가 취임했다고 밝혔다. <사진=순창군>

순창군 보건의료원, 온기곤 신임 원장 취임

순창군은 지난달 31일자로 순창군 보건의료원 신임 원장에 온기곤 박사(67세)가 취임했다고 밝혔다.

온기곤 신임 원장은 전남대학교를 졸업하고 전북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 과정을 수료했으며, 원광대학교에서 안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했다.

이후 원광대학교 의과대학에서 부교수를 역임한 그는 전북 부안군에서 안과의원을 개원해 28년 동안 풍부한 임상 경험을 쌓으며 학술적 전문성과 실무 능력을 두루 갖췄다.

순창군은 온 원장의 풍부한 임상 경험과 학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사회 건강 증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 공모 선정

사업비 5,500만원 확보 무단 점유 드론 활용 조사

남원시는 2025년 공유재산 실태조사 지원사업 공모에 선정돼 사업비 5,500만원을 확보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를 통해 재산 활용 가치를 제고하고 지방세입 확대를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는 실태조사 시 타당성 및 적정성과 결과 활용을 평가해 전국에서 총 25개 지자체를 선정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사업비를 포함해 총5,500만원(시비 2,750만원 포함)을 투입, 6월부터 시 소유 공유재산(토지) 조사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남원시는 공유재산 총조사와 관련해 공유재산의 현황과 각종 공부를 일치시킨 후 실태조사는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으로 항공사진 분석을 통한 공유재산 이용현황 전수조사를 비롯해 무단 점유 의심 및 유휴재산 등도 추출해 현장 조사(드론 촬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파악된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목적 외 사용, 무단 형질변경 등의 불법 사항에 대해서는 변상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 부설 완주노인대학 개강

대한노인회 완주군지회(회장 김영기) 부설 완주노인대학(학장 남상훈) 개강식이 봉동읍 행정복지센터에서 개최됐다.

1일 열린 개강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유의식 완주군의회 의장이 참석해 어르신들의 첫 발을 축하했다.

완주노인대학은 올해로 제42회를 맞고 있으며, 노인 세대의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대표 프로그램으로 자리잡고 있다.

노인대학생 80명은 앞으로 매주 화요일에 오전 11시부터 두 시간씩 각 분야의 강사를 초청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다.

올해는 건강체조, 교통안전, 시사, 저명인사 특강 등의 강의가 개설됐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완주=김명곤 기자

완주군 드림스타트 아동전문가 초빙 자문 회의

완주군 드림스타트가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아동통합사례관리를 위해 한일장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최혜정 교수를 초빙해 제1차 슈퍼비전 회의를 열었다.

슈퍼비전은 고위급 아동에 대한 사례개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사례 아동뿐만 아니라 가정 및 환경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외부 전문가로부터 지문을 받는 과정이다.

이번 회의는 아동통합사례관리사 등 6명이 참석해 복잡하고 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례아동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전문가는 사례관리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아동 가정의 문제상황 개선을 위한 접근방법 및 상담기법 교육 등을 안내했다.

완주군 드림스타트는 심리, 행동, 경제적 상황 등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서비스 지원 등 사례관리서비스를 제공하지만 복합적 문제로 쉽사리 개입하기 어려운 고난도 위기가정은 슈퍼비전을 통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서금란 교육정책과장은 “이번 슈퍼비전 회의를 통해 해결하기 어려운 사례에 대해 전문가의 견해를 들음으로써 사례관리 역량을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전했다.

한편 완주군 드림스타트는 연 4회 이상 슈퍼비전 회의를 열어 교육·심리·복지·보건의료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사례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있다.

/완주=김명곤 기자

순창군 청소년수련관 청소년어울림마당 공연

순창군청소년수련관(관장 이상은)은 오는 18일 순창읍 중앙로 일대에서 열리는 제63회 ‘순창군민의 날’ 축제와 함께 ‘제2회 순창군청소년어울림마당 ‘YF’(Youth Festival)’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청소년어울림마당은 청소년이 직접 기획하고 운영하는 축제로, 청소년과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의 장이다.

아울러, 이번 어울림마당은 ‘군민의 날’ 지역축제인 문집골목페스티벌과의 협업으로 진행돼 더욱 풍성한 프로그램이 마련될 예정이다.

이번 행사에서는 청소년 동아리들이 참여하는 체험부스와 공연이 운영되며, 청소년들의 문화적 감수성과 역량을 키울 수 있는 다채로운 활동들이 펼쳐진다.

특히, 청소년수련관은 현재 무대에서 끼와 재능을 선보일 청소년 공연팀을 모집 중이라고 전했다. 댄스, 밴드, 보컬, 악기 연주 등 장르를 불문하고 참여 가능하며, 선정된 팀에는 소정의 공연비도 지급될 예정이다.

공연단 신청은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한 온라인 접수 또는 청소년수련관(063-652-1318)으로 전화 신청 및 문의가 가능하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영농부산물 현장 파쇄 SNS 활용 수시 홍보

남원시농업기술센터(소장 김연주, 이하 센터)는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에 대해 신속하게 영농현장에서 파쇄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다.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수시로 SNS를 활용해 홍보하고 있으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실시, 가지파쇄기 안전사용 교육 영상 배포 등 현장강화 및 안전사고 방지에 중점하고 있다. 특히 산불 방지에 기여하기 위해 산림인접지 100m 이내의 영농부산물을 우선적으로 파쇄하도록 산림과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협력으로 추진하고 있다.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은 농업인의 신청을 받아 과수 잔가지, 고춧대, 갯대 등 영농부산물의 불법소각을 예방함으로써 산불 방지 및 미세먼지 저감에 기여하고, 파쇄한 영농부산물을 퇴비로 활용해 자원의 순순환을 실현할 수 있는 사업이다.

또한, 남원시농업기술센터는 농업인들의 파쇄처리를 지원하기 위해 파쇄기 44대를 보유중에 있으며, 연중 무상으로 임대가능하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산불 예방 모악산 웰니스 축제 전면 취소

국가위기경보 ‘심각’ 따라 생활 불법소각 집중 단속

완주군이 영남지역의 동시 다발적인 대형 산불로 인해 재난 국가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발령됨에 따라 4월 5일부터 6일까지 예정됐던 ‘완주 모악산 웰니스 축제’를 전격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31일 완주군은 긴급회의를 열고 대형 산불로 인명피해와 이재민 발생으로 모든 국민이 위기를 극복해야 하는 엄중한 사회 분위기를 고려해 취

소 결정을 내렸다.

모악산 웰니스 축제는 모악산을 중심으로 ‘건강, 행복, 치유’와 관련한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는 행사다. 군은 산을 주제로 한 축제인 만큼, 행사를 전면 취소하고 산불 예방에 총력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각 부서장이 참석한 긴급회의에서 산불 감시인력을 확대 배치하고, 주요 등산로 및 산림 인접 지역에 대한 순찰을 강화하는 등 산불 예방과 초기 대응 체계를 한층 더 강화할 것을 강력 주문했다.

이에 군은 산불 발생시 즉각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비상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산불 예방과 예방 홍보활동 강화, 영농 부산물과 생활 쓰레기 불법소각을 집중 단속한다.

유 군수는 “인근 무주, 고창, 정읍 등 지에서도 산불이 발생함에 따라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부득이하게 취소를 결정했다”며 “산불 예방을 위한 각별한 주의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향후 더 나은 환경에서 다시 축제를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남원 옷칠목공예대전 수상작 ‘춘향과 함께’

37점 춘향제 기간 전시 전통목기제작기술 선포

제28회 옷칠목공예대전의 수상작 37점에 대한 시상과 전시회는 남원을 대표하는 축제인 제95회 춘향제 기간에 함께 관람객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남원에서 개최하는 ‘제28회 남원시 전국 옷칠 목공예 대전’은 전국에서 유일한 옷칠 목공예 분야 공모전으로 28년 동안 수많은 옷칠 목공예가를 배출한 한국 현대 옷칠 목공예의 변화와 성장을 상징하는 대전이다.

전통 옷칠 목공예의 계승과 신진작가들의 발굴과 육성에 지향점을 두며, 최근에는 현대적 감성의 일상생활 목공

예품의 비중이 늘어나는 등 신진작가들의 등용문으로 각광 받고 있다.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전통 목기 제작 기술이자 남원을 상징하는 갈이 공예 분야는 이 대전만이 가진 특별한 매력으로 손꼽힌다.

옷칠목 ‘옷칠 목공예’와 ‘갈이 공예’ 분야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오는 4월부터 6월까지 남원시청 1층 강당과 서울 남원 장학숙 2개소에서 3일간 전시를 받는다.

시상은 총 37점으로 상장과 상금은 총 1억 3,000만원(대상 3,000만원)을 수여한다.

이번 대전의 수상작 37점에 대한 시상식은 오는 5월 2일에, 전시회는 5월



2일부터 6일까지 5일간 안숙선 명창의 여정에서 선보일 예정이다.

이후 전주 한옥마을에 위치한 전주공예품전시관에서 오는 5월 27일부터 6월 1일까지 6일 동안 순회 전시도 개최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정읍에서 펼쳐진 셔틀콕 향연

전국연맹종별 선수권대회 68개팀 열전 마무리

정읍시가 12일간 전국의 배드민턴 실력자들을 한자리에 모으며 스포츠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지난달 18일부터 29일까지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전국연맹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이번 대회는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과 한국대학배드민턴연맹이 공동 주최하고, 정읍시배드민턴협회가 주관했다. 대학부와 일반부 총 68개 팀, 530여 명의 선수들이 참가해 남·녀 단체전과 개인전을 치르며 기량을 겨뤘다.

모든 경기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결승전 코트에는 LED 전광판과 특수 조명이 설치돼 마치 전영오른



정읍시 국민체육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전국연맹종별 배드민턴 선수권대회'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사진=정읍시>

과 같은 대회 분위기를 연출해 눈길을 끌었다.

관중과 동호인들에게도 수준 높은 관전 환경을 제공했다는 평가다.

지난 26일에는 정읍 출신이자 아시안

게임 금메달리스트인 유연성 씨가 JB금융그룹 아우름캠퍼스에서 한국실업배드민턴연맹 회장으로 공식 취임하며, 고향에서의 뜻깊은 행사를 함께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역대추향, 코빅스·남원의료원 견학

코믹스, 마스트팩 500여개 기탁

제95회 춘향제를 앞두고 지난달 30일, 역대추향들이 남원을 방문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역대추향은 제94회 춘향 진 김정윤, 미 장서현, 숙 박채윤, 정맹희 등으로 이들은 남원에 위치한 화장품 기업 코빅스를 방문하여 기업 견학을 진행하고, 코빅스 측으로부터 마스크팩 500여개를 후원 받았다.

이후 춘향들은 남원의료원을 찾아 병실을 돌며 입원 환자들에게 따뜻한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후원받은 마스크팩을 직접 전달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조 합 장 김 광 철
경제상임이사 김 형 문
신용상임이사 이 광 순

열린 수협!
희망의 수협!
수산인에게 풍요로움을
고객에게 신뢰감을 주는
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어업인이 부자되는 어부(漁夫)의 세상

군산시수산업협동조합

gunsan.suhyup.co.kr



전주시 사행연, 산불 피해복구 성금 기탁

전북자치도 전주시 사회복지 공무원들의 모임인 전주시사회복지행정연구회(회장 박은주, 이하 전주시사행연)는 지난달 31일 최근 산불로 인한 국가적 재난상황을 맞아 피해복구를 위한 성금 300만 원을 기탁했다.

'전주시 사행연'에서는 피해 주민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고, 하루 빨리 평온한 일상을 되찾는데 보

탔이 되고자 성금기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박은주 회장은 "우리의 작은 정성이 피해주민들에게 희망이 되어 다시 일어설 힘이 되기를 바란다"며 "전주시 사행연은 앞으로도 연대와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며 지역사회와 협력을 통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재근 기자



(유)군장공조, 군산교육지원청에 장학금 기탁

지난달 31일 (유)군장공조 전주환, 김희란 공동대표는 군산관내 학생들을 위해 뜻깊은 곳에 사용되기를 바라며, 500만원을

이날 장학금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는 군산지역 학생들에게 지원될 예

정이다. (유)군장공조는 지역사회 발전과 군산지역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지난 2020년 이후 매년 500만 원씩 총 3,000만원의 장학금을 기탁하는 등 지역사회 교육발전을 위한 귀감이 되고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농협, '소성면 산불' 성금 1천만 원 기탁

정읍농협이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이재민들을 위해 따뜻한 온정을 전했다. 정읍농협(조합장 유남영)은 지난달 31일, 소성면 산불 피해 주민들을 돕기 위해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모은 성금 1000만원을 정읍시에 기탁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이번 성금은 주거지를 잃고 생계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회복을 지원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다. 시는 기탁된 성금을 신속히 전달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농어촌공 동진지사 임직원,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김제시(시장 정성주)는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지사장 하인호)가 고향사랑기부금 420만원을 전달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부는 한국농어촌공사 동진지사 임직원 42명이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에 깊이 공감하며 본인 또는 타지역 거주 지인 홍보 등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졌으

며 김제시 지역 발전과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바라는 마음을 담았다. 하인호 지사장은 "기부금이 농어촌 생활 환경 개선 등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임직원들과 뜻을 모아 기부하게 되었다"고 전했다.

/김제=온봉기 기자

익산여산면 이장협의회 등 산불 피해 성금 기탁

여산면이 산불 피해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온정을 나눴다.

여산면 행정복지센터는 이장협의회(회장 송양석)와 후석마을(이장 이교관)이 성금 130만 원을 기탁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갑작스러운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 지역 주민들을 돕고자 마련됐다. 이장협의회는 100만 원, 후석마을 주민들은 30만 원을 자발적으로 모아 뜻을 전했다.

송양석 회장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자 모두가 한마음이 돼 성금을 마련했다"고 전했다. 이교관 이장은 "하루빨리 피해 지역이 복구돼 주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밝혔다.

이정호 여산면장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따뜻한 마음이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이라며 "기탁된 성금은 산불 피해 복구와 이재민들의 조속한 일상 복구를 위해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무주군의용소방대연합회, 이웃사랑 쌀 30포대 기탁

무주군의용소방대연합회가 1일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과 사회복지시설에 전해 달라며 쌀 30포대(1포대 10kg / 1백만 원 상당)를 기탁했다.

이날 무주군을 찾은 김용찬 회장과 윤정순 회장은 "한국 사람은 밥심으로 산다고 의용소방대원들이 마음으로 지은 밥한 끼에 우리 이웃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길 바란다"라며 "의용소방대는 앞으로도 지역의 안전과 이웃의 행복을 위해 솔선수범하는 단체로 거듭 발전해 갈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무주군의용소방대연합회 회원은 모두 270여 명으로 20년 전부터 소화기 기부와 이웃돕기 성금 기탁 등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반딧불축제 등 지역행사에서는 교통 정리 등에도 동참하는 등 다양한 봉사활동에 동참하고 있다.

/무주=최희호 기자



군산수송동 시니어 치안지킴이 영남지역 산불 성금 전달

수송동 시니어 치안지킴이 노인 일자리 어르신 9명이 영남지역 대형산불 피해 주민들을 위해 성금 9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지역을 넘어 도움이 필요한 곳에 힘을 보태고자 작지만 소중한 정성이 모인 결과이다.

지난달 31일에 성금을 전달한 어르신은 "우리도 사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는데, 이번에는 우리가 작은 힘이나마 보태고 싶었다. 하루빨리 피해 지역이 복구되어 주민들이 다시 일상을 되찾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곽은하 수송동장은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과 나눔 실천이 큰 감동을 주고 있다"라고 감사를 표하며 "어르신들의 따뜻한 마음이 산불피해를 입은 주민들에게 큰 위로와 희망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치안지킴이 어르신들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방범 활동을 하며 주민 안전을 지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기탁된 성금은 산불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남지역 주민들의 복지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칼럼〉



올림픽과 패럴림픽, 함께해야 하는 이유
전북의 2036 올림픽 유치 계획은 충분한가?

이재원

한국특수체육학회 회장, 용인대학교 교수

1988 서울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한 도시에서 개·폐회식장을 포함한 대다수의 경기장을 함께 사용하며 나란히 개최된 최초의 대회로,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1988년 이전까지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같은 해에 열리긴 했지만 서로 다른 도시에서 별도로 개최되었다. 제1회 패럴림픽인 1960년 로마 대회와 제2회 패럴림픽인 1964년 도쿄 대회의 경우 도시는 같았으나 경기장은 대부분 달랐고 이러한 흐름은 1984년 까지 이어졌다.

1980년 패럴림픽의 경우 올림픽 개최국인 소련에서 '우리나라에는 장애인도 없다.'는 이유로 대회를 거부하며 최종적으로 네덜란드 아른헨에서 열렸다.

서울대회 직전 대회인 1984년 대회의 경우 개최국(미국)의 파행으로 미국 안에서도 일리노이에서 뉴욕으로 개최지가 변경되었으며 전 종목을 개최하기도 어려워 휠체어종목만 따로 영국 스토크맨더빌에서 뉴욕 대회 종료

후 약 20여 일 뒤에 대회를 별도로 치러야 했다.

그렇기에 1988년 서울에서 올림픽이 끝난 후 패럴림픽 선수들이 올림픽 개최식장인 잠실 주경기장에 동등하게 입장했을 때 느꼈을 감동이 어땠는지 감히 상상하기 어렵다.

지난 2월 28일 2036년 하계 올림픽 국내 유치 후보도시로 전북특별자치도가 선정됐다.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열린 대한체육회 2025년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된 2036 올림픽 유치 국내 후보지 선정 투표에서 총 61표 중 전북은 49표를 얻어 11표를 얻은 서울을 꺾었다. 무효표는 1표였다. 모두의 예상을 깬 압승이었다.

전북은 '지방 도시 연대'를 통한 국가 균형 발전을 강조 한 것이 이번 승리의 핵심이었다.

유치 시 육상 경기는 대구스타디움, 양궁·수영은 광주, 테니스는 충남 흥성, 실내 스포츠는 충북 청주, 해양 스포츠는 전남 고흥 등에서 분산 개최할 계획이다.

이는 IOC의 인접 도시 연계를 통한 비용 절감 기조에 부합하며, 수도권 중심의 인프라와 경제력을 분산시켜 국가 균형 발전 모델을 제시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그러나 여기까지의 올림픽 유치 계획은 절반만 수립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패럴림픽 유치에 대한 계획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IOC를 포함한 국제 스포츠계에서는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통합된 하나의 프로젝트로 보고 있으며, 패럴림픽 유치계획이 국가 간 경쟁에서 중요한 평가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아쉽게도 전북이 후보도시로 선정된 지 보름 정도가 지났지만 현재 전북특별자치도 누리집 내에는 올림픽에 대한 이야기만 있고 패럴림픽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다.

이제 전북의 경쟁상대는 국제 무대다. 아시아에서만 인도네시아, 인도,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등 4개국이 2036 올림픽·패럴림픽 유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유럽

에서도 3~4개 국가가 유치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경우 이미 2022년 발리 G20 정상회의에서 조코 위도도 당시 대통령이 직접 2036 올림픽 및 패럴림픽 유치를 사를 표명했고 이에 토마스 바흐 IOC위원장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바 있다.

인도 역시 역사상 최초로 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유치를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는 2029년 동계아시아경기, 2030년 엑스포, 2034년 하계 아시아경기, 2034년 월드컵 유치를 성공한 경험을 바탕으로 2036 올림픽·패럴림픽까지 유치하려고 한다.

올림픽과 패럴림픽은 함께 해야 한다. 그리고 전북이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패럴림픽을 포함한 올림픽 유치 계획을 빠르게 보완하고 이를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다.

전북이 진정한 의미의 '완성된' 대회 유치계획을 조속히 마련하고 발표하길 기대한다.

사설

윤석열 탄핵 심판, 상식을 믿고 싶다

헌법재판소가 드디어 윤석열 탄핵심판에 대한 최종 결정을 4일 내린다. 111일간의 심의 끝에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헌정질서가 유지될지, 아니면 국도의 혼란과 퇴행으로 치닫게 될지가 결정되는 중대한 순간이다. 우리는 단호하게 윤석열의 파면을 촉구하며 현재가 이를 인용하는 것이 헌법정신과 국민의 의지를 반영하는 유일한 길임을 강조한다.

윤석열의 탄핵 사유는 단순한 실정(失政)을 넘어선다. 그의 재임 기간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는 유례없는 위기에 처했다. 헌법을 수호해야 할 자가 이를 무시하고 국민을 외면한 채 검찰 독선적인 국정 운영을 지속했다. 독재의 부활, 권력 남용을 통한 각종 부정과 비리, 야당인사 탄압, 언론 장악 시도, 국민의 기본권 침해 등은 대통령으로서의 헌법 수호 의무를 저버린 명백한 위헌 행위였다. 경제는 무너지고, 민생은 파탄 났으며 외교는 철저히 실패했다. 국정 운영이 아닌 정치 보복에 몰두한 결과, 국가는 끝없는 혼란에 빠졌고 국민들은 피로와 절망에 시달리고 있다. 민주주의의 핵심인 삼권분립은 심각하게 훼손됐으며 검찰과 사법부를 이용해 정적을 탄압하는 행태가 반복됐다. 이 모든 것이 윤석열 정권이 초래한 참사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가 윤석열의 탄핵소추를 기각하거나 각하하는 결정을 내린다면 이는 국민의 상식과 정의를 저버리는 행위가 될 것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그 공화국의 기반은 헌법에 기초한다. 윤석열이 저지른 위헌적 행위들은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유린

한 범죄이며 그에 대한 탄핵소추는 정당하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현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윤석열 탄핵을 반대하는 세력들은 이념적 프레임을 이용해 국민을 현혹하려 하지만 이는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로 남을 것인가, 독재와 불법이 난무하는 국가로 전락할 것인가의 문제다. 탄핵 반대 세력들은 오히려 물지각한 여당의 맹목적 동조, 윤석열 측근들의 조종, 극단적인 종교 세력의 선동을 통해 여론을 왜곡해 왔다. 그러나 국민들은 현명하며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

현재 재판관들은 법치의 최후 보루다. 그들은 헌법을 단순히 조항으로 해석하는 재판관들이 아니라,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수호자로서 헌법 정신을 구현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고 있다. 현재가 윤석열의 파면을 결정하는 것은 단순한 법리 해석의 문제를 떠나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역사적 책무이다. 재판관들이 국민의 준엄한 뜻을 외면하고 윤석열의 위헌 행위를 용인하는 선택을 한다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더 이상 실 곳을 잃는다. 4일은 윤석열이 내란적 행위를 저지른 지 123일째 되는 날이다. 그 123일 동안 대한민국은 극심한 혼란과 분열 속에 휩싸였다. 이제 현재가 결단을 내릴 시간이다. 윤석열을 파면함으로써 대한민국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길을 다시 걸어갈 수 있어야 한다. 오랜 시간 국민들은 참고 기다려왔다. 현재가 국민과 역사 앞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리기를 강력하게 촉구한다.

독자광장

너와 나, 우리모두가 함께 지키는 어린이 교통안전



아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고 교통안전을 위해 노력할 때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이란 초등학교와 유치원 주 출입문 등을 중심으로 반경 300m이내의 도로 중 어린이 보호를 위해 지정된 구역을 말한다.

이제는 모두가 알고 있겠지만 보호구역내에서는 30km/h 이하

의 속도로 차량을 서행 주행해야 한다.

또한 교통법규 위반시 벌점과 범칙금이 일반도로에 비해 2배가중되며 어린이 교통사고를 발생시키게 되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처벌을 받게되기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더더욱 조심해야 한다.

어린이 교통사고는 성인교통사고와 다른 특성이 있다. 대체로 등학교 시간, 즉 낮시간대에 집중된다는 점과 발생 장소가 학교 주변과 주택가 골목길로 비교적 제한적인 장소에서 발생한다는 점이다.

성인과 달리 늦은밤 활동이 많지 않은 점, 이동반경이 넓지 않

고 학교 주변에서 이동하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 경찰과 지자체에서도 개학기를 앞두고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등학교 시간 사고 예방을 위한 보행지도, 법규위반 단속 차량 단속과 보행자 중심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학교 앞 교통안전 캠페인, 관계부처와 합동하여 진행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점검과 교통안전 시설물 일제정비까지, 이러한 개선 및 노력들은 필수적적으로 '우리 모두의 노력'없는 무용지물이다.

안전한 생각과 안전불감증에서 비롯되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막

기 위해서는 '교통법규, 나부터 지키자', '사소한 운전 습관 하나가 아이들을 지킨다', '모두 내 아이라고 생각하자' 등의 생각 전환과 인식의 변화, 시민의식 함양이 있어야 비로소 효과를 나타낸다.

'과유불급' 항상 지나침과 넘침을 경계하라는 우리의 정서는 교통안전,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에 서만큼은 예외인듯하다.

교통안전에서만큼은 지나치게 조심하고 넘치게 경계해도 좋다. 이러한 우리 모두의 인식과 노력이 함께하여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하고 실천해 나가길 바란다.

/정읍경찰서 교통과 경사 김지혜

문화재열전



지당리 석불입상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유물, 불교조각, 불상
- 지정일 - 1974년 9월 27일
- 시대 - 고려시대
- 소재지 - 남원시 남원시 주생면 지당리 65번지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전북소식 444호 2011년 10월01일創刊/등록번호전북가-00022(발행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전주시덕진구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정재근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종양지시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연우지시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9-1721	완주지국 010-3872-0308
팔백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시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령을 준수합니다			

순창한우명품관

우리 지역, 우리 한우

다양한 품과 고객라운지를 비롯하여 360석 규모의 각종 행사가 가능한 연회석이 준비되어 있으며, 정갈하고 신선한 식자재와 최상의 한우로 최고의 맛을 전해 드립니다.

다양한 품 6-12-24인실

각종행사 가능한 총 360석 규모

포장주문 가능

편안한 대기공간

엘리베이터 완비

순정축협 순창한우명품관

063)653-2319



온 가족이 웃고 즐기는 남원 춘향제 '패밀리존'

전통문화 축제인 남원 춘향제는 오는 4월 30일부터 5월 6일까지 7일간 남원 광한루원 및 요전면 일원에서 펼쳐진다. 가족 단위 관광객과 청소년들을 위해 사랑의 광장 일원에 '패밀리존'을 조성하여 더욱 풍성한 축제 분위기를 선보일 예정이다.

패밀리존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시설, 다양한 공연 프로그램,

오는 4월 30일~5월 6일 7일간 개최

사랑의 광장 일원 '패밀리존' 조성

놀이시설·공연·푸드트럭 등 다양

에어바운스 놀이터·바이킹·디스코 팡팡

푸드트럭, 편의시설 등을 조성한다.

놀이시설은 4세부터 초등학교까지 연령대에 따라 구분하여 아이들이 안전하고 재미있는 체험이 가능한 에어바운스 놀이터, 짜릿함을 즐길 수 있게 높이 조절이 가능하여 전 연령대가 탈 수 있는 미니 바이킹, 신나는 음악과 함께 좌석이 회전하여

탐승자와 관람객 모두에게 큰 웃음을 주는 디스코 팡팡이 있다. 특히 중·고등학생들에게 인기가 많다.

이렇듯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을 마련해 재밌는 추억의 시간을 만들어갈 예정이다.

그리고 공연 프로그램은 청소년 층의 아름다운 노래와 춤을 경험할 수 있는 전국청소년댄스경연대회, 다양한 밴드 음악을 경험할 수 있는 전국밴드경연대회, 모두를 동심의 세계로 이끌어 줄 버블쇼,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서커스 공연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이와 함께 간단한 먹거리를 파는 푸드트럭 운영 및 편안한 휴식 공간을 위해 쉼터를 운영할 예정이다.

아기를 동반한 관광객의 편의를 위한 수유실을 마련하고 무더위 쉼터를 설치하여 폭염에 대비한다.

남원시 관계자는 "남원

춘향제 패밀리존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으로서 관광객이 놀이와 휴식을 적절하게 누릴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준비하고 참여하는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함께 춘향제의 특별한 매력을 만끽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진심을 달이고 담다
청정원 **햇살담은**



진심 하나로 맛의 레벨업

11년 이상 된 **쌈장**을 넣고 숙성해
더 깊은 맛의 **양조간장**으로 꼭 바꿔보세요!

간장 부문 브랜드 1위
고객만족도(BCSI) 1위
[시원식품(주) (주)소비자랑가2023년]